

『제1회 이클레이 탄소제로레이스 웨비나』 인사말씀
Video Message for ICLEI Race to Zero Webinar

세계 도시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세계 지방도시 시장님들과 이클레이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Greetings to city leaders and staff of ICLEI who are
striving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ities in the
world. I am Yeom Tae-young, Mayor of Suwon, Korea.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탄소 제로 레이스 캠페인’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웨비나’를 제안하고 추진하시는
아속 알렉산더 스리드하란 이클레이 회장님께도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I'd like to express my respect to President
Ashok-Alexander Sridharan for proposing and promoting
this ‘webinar’ to continue the momentum of ‘Race-to-Zero’
campaign, despite the pandemic.

저는 이클레이 집행위원으로서,

또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협의회의 회장으로서,

한국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As a member of ICLEI Executive Committee and president of **Korea's National Association of Mayors**, I am making every endeavor to propose the direction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strengthen the capability to achieve 'carbon-neutrality.'

지난 6월 5일,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정한 '세계 환경의 날'에는 대한민국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기후위기 비상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On June 5, 'World Environment Day' designated by UNCHE, all local governments of Korea gathered to announce **'Climate Emergency Declaration.'**

선언문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겠다는,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기초지방정부 대표들의 다짐을 담았습니다

The declaration presented the commitments of local government leaders to set reduction targets, implement actions, and achieve 'net-zero,' or carbon neutrality, by 2050.

그날 우리가 함께한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세대의 '양심선언'이었습니다.

Our 'Climate Emergency Declaration' on that day was a 'Declaration of Conscience' for our future generations.

한 달 뒤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손을 맞잡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agreed to join hands and take substantial actions towards a carbon-neutral society a month later.

이날 출범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 기후체계가 요구하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며, 탄소중립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삼아 시민 모두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The ‘Association of Local Governments for Carbon-Neutral Actions’ launched on that day will lay the foundation for realizing carbon-neutral society, implement core values required by New Climate Regime, and invite citizens to participate by taking carbon neutrality as a universal value of humanity.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가 초래한 엄청난 환경의 변화, 그로 인해 갈수록 빈발하는 자연재난과 감염병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We are facing grave challenges, such as repeated outbreaks of natural disasters and infectious diseases, brought about

by tremendous changes in the environment caused by climate change.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The COVID-19 pandemic is one of them.

더 늦기 전에 ‘탄소중립 사회’를 이뤄내는 것만이 유일한 인류 생존의 길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We all understand that the only way for humanity to survive is to realize ‘carbon-neutral society’ before it is too late.

기후위기는 어느 한 지역, 한 나라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전 지구적인 과제입니다.
Climate crisis is a global challenge that cannot be addressed by a single region or nation.

전 세계가, 그 중에서도 일선 현장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힘이 오롯이 한데 모여야 합니다.
Local governments of the world, who are responsible for managing each region, must collaborate.

우리 모두의 연대와 참여가 기후위기를 이기는 힘입니다.
Our solidarity and participation is the driving force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Let us overcome the crisis together! we can do it!

감사합니다.

Thank you